

신자유주의 조류에 대한 평가

- 성경적 세계관의 시각에서 -

The Evaluation of New Liberalism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I 서론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침이 되어야 한다면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 문제도 기독교인은 성경에서 가르침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문제의 범위는 매우 넓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때 과소비가 사회의 관심을 끌었는데¹⁾ 이러한 소비관뿐만 아니라²⁾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직업관도 경제 문제의 일부이고, 어느 정도 일하고, 어느 정도 쉬어야 하는가 즉 '일과 여가' 에

1) 김승욱, "1만 불 소득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국민소득이 절반밖에 안 되는 한국인이 일본인이나 미국인보다 더 잘 쓰는 이유", 『복음과 상황』, 1996년 5월호.

2) 김승욱,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소비 생활", 『그 말씀』 1992년 9월호; 김승욱, "돈 쓰는 훈련도 영적 훈련이다", 『새벽 나라』, 1995년 6월호; 김승욱, "성서적 소유권에 관한 一考", 『기독교 학문 연구회 소식지』 권두언, 1990. 8. 20.

관한 것도 경제 문제의 한 부분이다.³⁾ 또 기업 경영에 대한 것도 이 부류에 포함될 것이다.⁴⁾

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주제도 예를 들면 경제 성장⁵⁾, 경기 변동⁶⁾, 물가⁷⁾, 노사 관계⁸⁾, 소득 분배⁹⁾, 경제 전망¹⁰⁾, 정부의 경제 규제¹¹⁾, 빈곤 문제¹²⁾ 경제 체제¹³⁾, 농업 문제 등 많이 있다.

교회와 관련된 경제 문제도 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재정 사용 문제, 즉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얼마를 교회 활동을 위해서 쓰고, 사회나 구제 활동을 위해서 얼마를 쓰는 것이 합당한가, 또는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누가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가, 교회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의 문제도 경제 문제에 포함될 것이다.

- 3) 김승옥, "일과 여가 (I) : 현대인은 일과 여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복음과 상황』, 1996년 7월호; 김승옥, "일과 여가 (II) :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복음과 상황』, 1996년 8월호; 김승옥, "일과 여가 (III) : 그리스도인의 여가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복음과 상황』, 1996년 9월호.
- 4) 황호찬, "크리스찬 기업가의 갈등", 『신앙과 학문』, 2권 1호, 1997 봄호.
- 5) 김승옥,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 제14회 기독교 학문 학회 발표논문집, 1997. 10. 73-93쪽; 김승옥, "경제 성장: 하나님의 축복인가 우상인가?: 경제 성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 말씀』, 창간호, 1992.
- 6) 이대식, "IMF 관리하의 한국 경제", 『신앙과 학문』, 2권 4호, (1997 가을); 김승옥, "세계 불경기와 토지 가격", 『복음과 상황』, 1993 11월호.
- 7) 김승옥, "물가 이야기", 『복음과 상황』, 1996년도 12월호.
- 8) 김승옥, "노동법 개정에 대한 기독교인의 시각", 기독교 학문 연구회 월례회 발표 논문, 1997. 5. 10; 김승옥, "메이데이의 유래", 『복음과 상황』, 1994년 5월호.
- 9) 김승옥, "소득 분배와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복음과 상황』, 1995년 3월호.
- 10) 김승옥, "21세기 세계 질서의 변화와 기독교인의 역할",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학보』, 1994. 5; 김승옥, "경제 패러다임 어디로 가나", 『빛과 소금』, 1998년 6월호.
- 11) 김승옥, "규제의 경제학: 식품 접객 업소의 심야 영업 규제 - 계속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복음과 상황』, 1995년 10월호; 김승옥, "심야 영업 제한 조치를 지방 자치 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 『기윤실 소식지』, 1995년 4월 22일.
- 12) 김승옥, "기독교 자본에 관한 아그라 협약"을 소개하며 동참을 호소합니다(The Agra Covenant on Christian Capital), 『복음과 상황』, 1995년 9월호; 김승옥, "세계 빈곤 문제에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 "기독교 신앙과 경제에 대한 제3회 국제 회의(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ristian Faith and Economics)"에 다녀와서", 『목회와 신학』, 1995년 5월호.
- 13) 로널드 내쉬, 『기독교와 자본주의』, 이상용 (윤김), 한뜻으로, 1991.

이러한 경제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상 생활 중에 직면하는 문제이거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다. 목회자들 역시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계층의 교인을 상대하고, 때로는 자문이나 상담을 해야 하므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경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 보기 위해서 성경적 인간관과 사회관을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의 견해와 비교하고, 사회주의의 문제점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고찰한 뒤, 사회주의가 퇴조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확대되어 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경제적 사명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경제 문제에 대한 세계관적 기초

월터스(A. Wolters)는 세계관(Worldview)을 “사물에 관한 기본적인 신념의 포괄적 틀(the comprehensive framework of one’s basic beliefs about things)”이라고 정의했다.¹⁴⁾ 여기에는 인간관, 신관, 사회관 등이 포함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감추어져 있는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과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¹⁵⁾

인간의 본래 모습		목표	경제 문제의 원인	해결책
자본주의 (애덤 스미스)	사회적 인간	효율성 경제성장	정부의 규제에 의한 효율성의 상실	자유 방임

14) 알버트 월터스, 『창조·타락·구속』, 양성만 옮김, 서울:IVP, 1985, 13쪽.

15) 김승욱, “A. Smith, K. Marx, 및 J. Calvin의 人間觀 비교: 인간관, 모순의 원인 및 해결 책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성』, 1992.

사회주의 (칼 마르크스)	노동하는 인간	평등성 지상낙원	사유재로 인해 빈부 격차 심화	자본주의 체제의 타파
성경적 세계관	창지기	하나님 나라의 확장	타락 (자아의 노예)	구속 (새로운 피조물)

(표 1) 인간관과 사회 경제관 비교

위 <표 1>의 첫째 열은 본래 인간의 모습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가 성경과 어떻게 다른가를 정리했고, 둘째 열은 각 체제가 추구하는 목표, 셋째 열은 경제 사회 문제의 원인에 대한 시각을 비교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제대로 고칠 수 있는가에 대한 처방을 비교했다.

몇 년 전만 해도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기 전에 즉, 소련과 동유럽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기 이전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¹⁶⁾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이념은 성경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능력에 따라서 경쟁을 하리는 자본주의보다는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는 공산주의가 더 성경의 사상과 가깝게 보인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부르짖었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기독교를 부인했고, 반면에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는 기독교 국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 하는 문제로 많은 학자들이 논란을 빚었고, 특히 진보측에서 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분석의 방법은 먼저 원래의 인간의 모습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다른가? 둘째는 사회 문제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고, 셋째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제대로 고칠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이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16) 도널드 헤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김경식 옮김, IVP, 1990.

다른 한편으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보았다. 즉 인간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가 존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의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사회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는 정도의 도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아도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애덤 스미스는 인간을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해 관계를 가장 잘 아는 각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사익 추구가 공익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사회가 잘못되어 가는가? 애덤 스미스가 살던 중산주의 시대에는 정부가 사회를 규제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었던 시대다. 이때에는 엘리트주의가 팽배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경쟁 때문에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으므로, 정부의 소수 엘리트 귀족들이 국민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속박했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는 지나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효율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자유 방임을 주장했다. 그러면 자유롭게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정부는 최소한의 질서 유지만 하고 개인에게 자유를 줄 경우에 개인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사회 질서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애덤 스미스는 사회 문제의 원인은 사회의 중산주의적 규제 때문이라고 보고, 사회 문제의 해결책은 규제를 없애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칼 마르크스의 견해는 어떠한가? 마르크스도 인간을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노

동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는 창의적 존재라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형평이므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지상 낙원을 이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회가 잘못된 원인은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 제도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이 극대화되어 자기 욕심만 채우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착취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했다. 마르크스는 물욕은 제2의 본능에 속하는 것으로 후천적으로 사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자본주의의 사적소유제도는 인간의 물욕을 극대화시키는 제도이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자본주의 사적 소유 관계를 청산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이기심에서 해방되어 자기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이상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 및 사회관이었다.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의 인간관과 사회관을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자. 먼저 성경적 세계관을 구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맥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즉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완벽하게 창조했던 세계가 타락해서 오늘날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재림에 의해서 완성된 세계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 창조, 타락, 구속의 맥락을 가지고 기독교의 인간관과 사회관을 정리해 보자.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타락한 후 인간의 모습은 자아의 노예가 되었다. 아

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바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 결국 이것은 죄의 결과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었다. 이러한 타락된 본성으로 인해서 사회는 악하게 되었고, 모든 사회 문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원인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즉 죄 사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그것이 인간의 완성된 새로운 모습이다. 따라서 이 사회의 모든 개인이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완전한 사회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그러한 완벽한 사회가 구현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려고 악과 싸워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는 인간관과 사회관이다.

III.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사회주의 몰락의 원인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의 맥락에서 왜 사회주의가 몰락했는지 살펴 보자.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원인을 많은 학자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노동과 개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초기에 공산주의 이념에 충일했을 때는 개인적 보상이라는 대가보다 사회주의 낙원 건설이라는 사회적 목표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그리하여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소련은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농업 국가로부터 세계 최강의 미국과 견줄 만큼 급한 공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유의 상실에서 오는 비효율의 증대와 공평한 사회

건설에 따른 개인적 보상의 부족으로 사회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19세기에는 우크라이나의 곡창 지대에서 나오는 농산물 때문에 유럽의 곡물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소련은 곡물 생산이 풍부했던 나라인데,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마르크스가 잘못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이 정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다. 즉 인간에 대한 기본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인간은 노동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적 소유 제도를 없애도 인간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다. 소련은 과거 73년 동안 사회주의 실험을 해 보았다. 소련에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태어나 자본주의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노동의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는 열심을 내지 않았다. 결국 인간의 속성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후천적 요소보다는 선천적인, 원죄적인 모습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결국 마르크스는 현실 사회를 분석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인간을 잘못 보았다.

또 마르크스는 사회 부조리의 원인을 잘못 보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 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제도도 사회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제도만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 사적 소유제도를 없애자, 그 부작용으로 효율성만 사라지고, 사회의 또 다른 병폐가 나타났던 것이다. 사회 부조리의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고, 사회 제도에서 찾은 것이 마르크스의 가장 큰 실수였다.

IV.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확대와 평가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세계는 신자유주의적 조류가 팽배해 있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약 200년 전에 애덤 스미스 등 고전학과 경제 학자들에 의해서 주창되었지만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유럽에서는 사회주의와 대항하기 위해서 사회 복지를 강조한 복지 국가가 등장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 동양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해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대신에 집단주의적 자본주의를 낳았다. 미국에서도 대공황의 영향으로 인해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수정 자본주의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산주의의 도전도 없어지고, 아시아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집단주의의 비효율성이 목격되면서 세계는 문명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무제한적인 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대처 행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에서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경향은 오늘날 빠른 속도로 세계 각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DJ노믹스의 기치 아래 신자유주의적 조류를 경제 정책의 전면에 표방하여,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장 기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자유 방임적 자본주의는 성경적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제도인가? 인류가 발전시켜 온 다른 제도에 비하면 자본주의는 비교적 성경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성경적 견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물질적 진보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경과 큰 차이를 보인다. 자본주의 경제학은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무한한 인간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자족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즉 물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더 나은 길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이념이 성경과 다른 이유를 애덤 스미스의 인간관과 사회관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관, 사회의 목표, 사회 모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의 맥락에서 살펴 보면 애덤 스미스의 견해는 마르크스와 다를 바가 없다. 서구 기독교 사회가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은 애덤 스미스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과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도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매우 긍정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강조하는 성경적 세계관과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애덤 스미스는 인간을 도덕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일 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이다.

사회 모순의 원인을 마르크스가 인간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시대의 사적 소유 제도라는 제도에서 찾은 것처럼, 애덤 스미스도 자신이 살던 중상주의 시대의 제도, 즉 정부 규제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결국 자본주의의 종주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나 사회주의의 기초를 놓은 마르크스나 인간관 및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세계관적 관점에서 보면 둘 다 계몽주의의 진보주의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두 사람 모두 인간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 부조리의 원인을 제도에서 찾았다. 그리고 이 제도만 고쳐지면 인간에 의해서 유토피아의 건설이 가능하리라고 여겼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경제사학자

하웃즈바르트는 『자본주의와 진보사상』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질투하는 자매와 같다고 했다.¹⁷⁾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간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말한 바와 같이 창의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고,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일말의 도덕심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노동을 싫어한다. 이러한 이율 배반적인 존재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회 체제는 이러한 인간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모두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즉 인간의 창의성과 자유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사회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세계관이 성경과 다른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먼저 자본주의 체제는 맹목적인 물질적 진보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웃즈바르트는 오늘날 자본주의는 진보주의의 경제적 표현이라고 했다. 진보주의는 계몽주의의 마지막에 나타난 사조이다. 계몽주의는 인간이 끊임없이 이성의 힘에 의해 진보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오늘날 인간들은 다 이 진보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인들도 어제보다 오늘이 잘 살고 오늘보다 내일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두가 진보주의의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하에서 인간은 항상 물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성장이 둔화될 때 실업 문제 등 많은 사회 문제가 생겨난다.

17) 하웃즈바르트,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정세열·김병연 옮김, IVP, 1985, 134쪽.

자전거가 굴러가야 안 넘어지듯이, 자본주의 경제도 앞으로 나가야, 즉 성장해야 체제가 유지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한 사회 내에서 화폐와 생산품이 순환되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세 사회와 같이 자기가 쓸 것을 생산하는 사회도 아니다. 따라서 남이 나의 생산물을 시장에서 구매해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생산하기 때문에 이 기대가 어긋나면 사회 전체적으로 혼란이 온다. 내 물건이 안 팔리면 나도 남의 물건을 못 사주고 그래서 경제는 침체된다. 한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도 돈이 돌아야 된다. 그것이 막히면 불경기가 온다.

1929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을 통해서 불경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험했다. 제2차 세계대전도 대공황 때문에 왔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인류는 큰 회생을 치르고 나서야 세계적으로 돈이 원활하게 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전후에 브레튼우즈 체제를 만들어 미국이 유럽과 패전국인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를 부흥시켰다. 물론 그 뒤에는 냉전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있었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발전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서구와 자본주의 국가들을 부흥시킨 것이다. 오늘날 왜 미국, 유럽 국가들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경제 위기에서 구제하려고, IMF를 통해서 긴급 자금을 대주는가? 그것은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면 일본도 그 영향을 받아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고 그러면 미국도 이러한 혼란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생리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바퀴가 돌아야 안 넘어지듯이 경제가 돌아야 된다. 자전거도 너무 빨리 돌면 사고가 나듯이, 경제도 너무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자전거가 너무 천천히 가면 서 있을 수 없듯이, 경

제도 화폐와 상품의 순환이 잘 안되면, 불경기가 온다. 그러니까 넘 어지지도 않으면서 핸들도 조작할 수 있을 적당한 속도로 발전할 때 그 경제가 건전하게 운행된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자본주의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자체가 개인은 물론 사회의 목표가 되었다.

물론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산업혁명 이전보다는 현대가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진보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행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경제적인 면은 행복의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은 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더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발전했지만,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다양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성장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나아가서 물질적, 경제적 성취가 유일한 개인적, 사회적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사회가 경제적 성취만을 지나치게 중요시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먼저 개인의 경우를 보자. 인간이 존엄성을 잃지 않을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수적인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정한 생활 수준을 만족한 후에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재물의 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낄 때, 또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인 물질이 목적이 되어 인간의 삶을 짓누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

내신 목적은 물질을 통한 쾌락을 최대한 느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며, 이때 비로소 인간은 만족과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되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경제 성장을 지나치게 추구해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성장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능력에 따라 자유 경쟁을 하다보면, 사회에는 경쟁에 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서 위화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는 형평의 문제도 역시 중요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중시 여기고, 사회주의 체제는 형평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겼다. 효율성을 무시하고 형평만을 중시 여긴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와 치른 경쟁에서 지게 됨으로써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로 체제 변환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지나치게 효율성만 추구하면 또 다른 사회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즉 계층간의 위화감이 확산되면 결국 19세기 말에 나타났던 노사간의 갈등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모든 사람들이 진보의 노예가 되어, 물질적 성장이라는 하나의 잣대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며, 다른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V. 결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교회는 물질적 부의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자

본주의는 200년 전에 발생했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인 약 2000년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부(富)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딤후 6:9-10)” 물질의 노예가 되어 가는 사회에 교회는 끊임없이 부의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둘째로 효율성의 추구만이 사회가 추구할 유일한 가치가 아님을 강조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청지기가 지닌 사명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인간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나 인류가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평균케 하는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범했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형평을 도모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사회주의가 했던 것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형평 문제를 강요할 경우에 효율성의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바람직한 것은 하우즈바르트가 말한 ‘열린 사적 소유제’라고 생각한다.¹⁸⁾ 즉 기본적으로는 효율성이 높은 사적 소유제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다. 교회가 자발적인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어서 형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업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월급을 주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동료를 격려하고, 보이지 않게 도우며, 자기의 것을 나눌 때 이 사회는 각박한

18) 하우즈바르트 (1985), 17-21장.

생존 경쟁의 장이 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복음 전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형평을 강조하던 사회주의가 무너진 오늘날 형평의 가치를 강조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할 것이다.